



소름돋는 저음... '악마 이발사' 박은태의 재발견

객석 짓누르는 저음 변신에 감탄
능청스러운 '러빗'...역시 옥주현
제작각 속사포 대사 환상의 조화

'스위니토드'는 거장 손드하임의 뮤지컬 중에서 아마도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성마저 '대중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스위니토드 한 편만 제대로 봐도 손드하임의 천부적 재능과 실력, 장기를 듣고 만져보기에 충분하다.

어쨌든 이 '스위니토드'를 한 줄로 써 보자면 '공포 혹은 도시괴담의 외투를 걸친 사회파극' 정도가 되지 않을까.

등장인물들이 속사포 대사를 쏟아내듯 노래하는 이중창 혹은 삼중창은 손드하임의 능기 중 하나다. 제작가 '나 몰라라'하고 제 갈 길을 달려가는데 모아놓고 보면 제작각의 멜로디가 황홀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 파로국밥의 극단적 조화를 뮤지컬로 떠먹는 기분. 클래식 팬이라면 말려의 교향곡을 듣는 느낌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무려 3층짜리 북창무대도 눈길을 끈다. 까마득한 3층은 전시용이었거니 싶었으나 틀림없이 활용되었다. 1층에서는 안소니, 2층은 토드, 3층은 정신병원에 갇힌 조안나가 각각 예의 제 갈길 노래를 부르며 3개의 지옥을 보여준다.

스위니토드 역의 박은태를 보며 '고음의 박은태'는 잊을 때가 왔나보다 싶었다. 객석까지 뚫고 밀려오는 저음에 놀란 관객들이 제법 많았을 듯. 이는 박은태의 피압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박은태'하면 저음을 빼고 중음에다 고음만 최고치로 올려놓은 이렐라이저같은 음



연세살인마 스위니토드로 분한 박은태(왼쪽)와 러빗부인 역의 옥주현. 두 배우는 강력접착제 같은 완벽 호흡으로 이 작품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이들의 연기변화와 진화를 지켜보는 것도 관객의 깨알 포인트.
사진제공 | 오디컴퍼니



색의 소유자였으니까(미성이란 얘기입니다). 박은태는 정상에 오른 이후 점점 더 노래를 잘 하고 있다. 이쯤 되니 존경심마저 든다. 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궁금하지 않다. 그저 옆에서 그의 진화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근하니까.

"옥주현 만세!". 옥주현의 러빗부인을 보고 든 생각은 "아참마 다 뻤네"였다. 지난 시즌에도 옥주현의 러빗을 봤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지난 시즌의 러빗이 "어지간하면 토드가 좀 받아주지" 싶은 러빗이었다면, 이번 러빗은 (여자로서는) 덜 매력적이고, (러빗으로서는) 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됐다.

옥주현은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고, 심지어 빙구미까지 갖춘 러빗을 보여줬다. 박은태뿐만 아니라 옥주현도 정상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옥주현이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좀 궁금하다.

최근 본 작품들 중 최고의 앙상블이 아니었을까. 앙상블 배우들의 노래도 군무도 모두 좋았다. 기괴한 의상과 분장도 시즌에 잘 어울렸다. 한두 배우의 분장은 너무도 리얼해 소름이 올라왔다.

앙상블이 부르는 "양의 털을, 아니 이발사의 털을 쓴 악. 마!" 합창이 은근 중독성이 있다. 네에, "아!"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마!"하고 경멸하듯 뱉어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조승우·홍광호·박은태(스위니토드), 옥주현·김지현·린아(러빗부인), 김도형·서영주(터핀판사), 임준혁(안소니), 최서연·이지수(조안나), 조희(비둘) 등 출연으로 잠실 샤롯데시어터에서 공연 중. 옥주현은 24일이 마지막 공연이다.

hmyang0307@donga.com

문화

15

2019년 11월 15·16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신간

●야구하자 이상훈
(김태훈 저 | 소동)



"대기 타석에 있는 다음 타자까지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한 뽕집 성심당'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의 이야기를 발굴

한 저자가 이번엔 야구선수 이상훈을 통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상훈을 프로선수가 된 후 철저한 자기관리로 프로임을 한시도 잊지 않은 선수, 최고를 추구했지만 낙오자도 자기 존엄을 지키며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인물로 기억했다. 책 제목이기도 한 "야구하자"는 이상훈이 현역 시절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

●가평·포천 힐링여행
(박종희 저 | 한국폴리매드)



저자는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이다. 자신이 나고 자란 포천과 어머니의 고향인 가평의 산하를 이 책에

담았다. 오성과 한음의 고장 포천은 한탄강, 산정호수, 백운계곡, 명성산, 광릉수목원 등 천혜의 자연을 자랑한다. 북한강을 품에 안고 운악산, 화악산 등 명산으로 둘러싸인 가평은 이색 향토마을과 청정계곡이 즐비하다. 이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저자는 성장해 도시로 나갔다가 최근 귀향했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의 첫 번째 귀향 보고와 같은 책. 가평과 포천의 정보뿐만 아니라 각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읽는 맛도 쏙쏙하다.

양형모 기자

문화 단신

●김지은 피아노 독주회



(12월 9일 오후 7시 30분 | 영산아트홀)

개관 20주년을 맞은 영산아트홀이 기획한 전문연주자 시리즈. 이번 독주

회에서 피아니스트 김지은은 슈베르트와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작품을 연주한다. 각각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이지만 고전시기의 음악적 이상을 고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지은은 "형식적 구성이 뚜렷한 고전의 대표 음악장르인 소나타를 이들이 상이한 시대에서 어떻게 다르게 펼쳤는지 해석하는 데에 주력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독주회뿐만 아니라 실내악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

아니스트 김지은은 현재 총신대학교와 S MMA 아카데미에 출강해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원현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2월 7·8일 | 오산문화예술회관·아트센터 인천) 젊은 지

휘자 케빈 존 에두세이가 이끄는 원현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의 무대. 원현은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에서도 알아주는 음악도시로, 원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원현필,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바이에른슈타츠오페라오케스트라, 원현방송교향악단과 더불어 원현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이다. 올해로 창단 74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파비올라 김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으로 호흡을 맞춘다.

양형모 기자

위니아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기

WINIA

특별할인행사중

초절전 1등급에너지효율 인버터 냉·난방기

전기료절감 NO!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 초기비용0원 - 최장36개월 장기할부
- ◆ 공장,업소,교회,사무실 무료방문견적
- ◆ 초강력 냉방,난방,제습 능력
- ◆ 저소음 컴프레서 장착으로 실내에서도 저소음
- ◆ 전문 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방문설치
- ◆ 본사전국유통망에 더욱 확실한 A/S
- ◆ 절감된 전기료만으로 기계값이?!

냉난방기 전문판매기업
소선공조

상담문의

☎ 1577-9486 (전국어디서나 무료)